KB증권

FIRST TO THE MARKET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2025년 5월 9일

조선/기계/방산 Analyst 정동익
newday@kbfg.com
연구원 서준모
junmo.seo@kbfg.com

조선산업

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 49.7% 감소

4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 56.4% 감소한 364만 CGT 기록

— 4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75척으로 전년동월 316척 대비 76.3% 감소. CGT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56.4% 감소한 364만 CGT를 기록

— 선종별로는 Container선이 636.8% 증가했으며, 그 외 LNG선 94.8%, Bulker 94.5%, Tanker 84.9% 감소. LPG선은 발주가 없었음

— 국가별로는 한국 -31.0%, 중국 -59.3%, 일본 -92.6% 기록 (CGT 기준)

올해 누적 기준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 49.7% 감소한 1,259만 CGT 기록

— 이에 따라 올해 누적기준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372척으로 전년동기 1,056척 대비 64.8% 감소. CGT 기준으로는 49.7% 감소한 1,259만 CGT 기록

— 선종별로는 Container선이 285.3% 증가했으며, 그 외 LPG선 91.7%, LNG선 88.1%, Bulker 85.7%, Tanker 79.7% 감소

— 국가별로는 한국 -49.6%, 중국 -55.9%, 일본 -67.3% 기록

한국 M/S는 지난해 22.2%에서 변동 없음

—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2.2%에서 변동 없음 (CGT기준)

— 중국은 지난해 61.7%에서 올해 54.1%로 하락했으며, 일본도 7.3%에서 4.8%로 하락

— 중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는 이유는 수주량이 크게 감소해 이탈리아의 크루즈선 수주 영향이 증가한데 따른 것

— 한국 조선사들의 2025년 신규수주 기준 선종별 믹스는 Container선 58.3%, Tanker 22.2% 등

— 중국 조선사들의 경우 Container선 65.8%, Tanker 6.4%, Bulker 4.5% 등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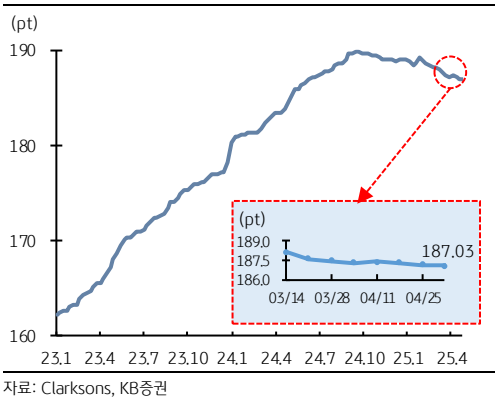
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하락세 지속

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최근 (5월 2일) 직전 주 대비 0.04% 하락한 187.03pt 기록

— 이에 따라 2024년 말 대비 달러선가 하락률은 1.13%를 기록 중이며,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해 원화기준 선가는 5.62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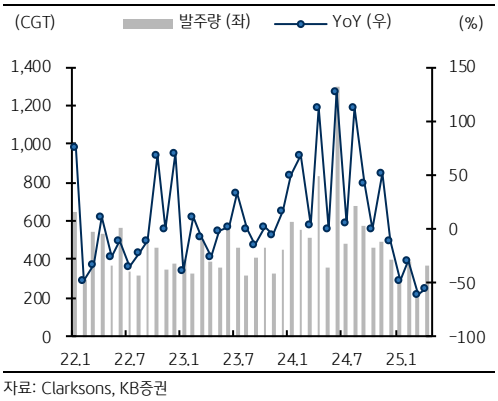
— 선종별로는 지난해 말 대비 MR Tanker 6.7%, Suezmax Tanker 4.4%, PCTC 4.1% 등 하락

클락슨 신조선가지수 추이 (주간)



자료: Clarksons, KB증권

글로벌 월별 발주량 추이 (CGT 기준)



자료: Clarksons, KB증권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
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